

호스피스 건보 혜택... 불교계도 쟁점음

조계종복지재단 포럼 이어 각계서 활동 방향 가늠

호스피스기관 56곳... 불교계는 '열외'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 혜택이 올 7월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제도 활성화와 임종문화 개선을 이끌 것으로 예상, 호스피스 중요성을 강조해 온 불교계도 발걸음이 바빠졌다.

시발점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었다. 재단은 3월 3일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열고 향후 불교계의 활동방향을 가늠했다. 이날 포럼에는 호스피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50여명이 운집해 몇몇은 서서 강의를 듣기도 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호스피스 전문 완화의료기관은 56곳, 병상은 939개에 불과하며 정부는 5년 내에 이를 1.5배로 확대 병상을 1,378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말기암환자의 10%에 불과한 이용률 역시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병상이 아닌 자택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형 완화의료 역시 향후 시범사업을 거친 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재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병동은 한 곳도 없는 실정. 지난해 개원해 불교계 최초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 알려진 울산 정도마를 자재병원으로 말기암환자 이외의 환자도 치료대상으로 받고 있어 말기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병원 요건과는 맞지 않는다. 때문에 자재병원은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지원혜택을 받기 어렵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자연히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불교계에서는 이들을 길러낼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보기 어렵다. 몇몇 뜻있는 스님들에 의해 설립된 지역 복지법인 내에서 호스피스 봉사자들을

길러내고 있을 뿐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역시 2010년 이후로는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봉사자들의 참여도 저조할 뿐 아니라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병원 역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공인식 사무관 역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공 사무관은 "전문인력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관건"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지원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호스피스 저변화 예상되는 가운데 불교계는 전문병원·인력 부재 임종문화 바꾸는 데 기여해야

불교 율회관 공유 계기될 수도

공 사무관은 이외에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완화의료란 완치가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통증완화 치료를 하고 그 가족들에게는 심리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완화의료는 치료 중단·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치료라는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직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정도마를 자재병원장 능행 스님은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공유할 필요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3월 3일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호스피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50여명이 운집해 몇몇은 서서 강의를 듣기도 했다.

있다"며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생사에 대한 명확한 이론을 토대로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일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교가 호스피스·완화치료를 통해 임종문화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로 광주 동국대 병원 법당 지도법사 무구 스님은 "소생이 어려운 환자들은 처음에 율회에 대해 잘 받아들이지 않다가도 만남 횟수가 늘어갈수록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며 "마지막에는 스님 덕분에 죽음을 두려움도 덜어내고 마음 편히 간다고 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이처럼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가 확대되면 자연스레 불교호스피스협회 활동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불교호스피스협회 최세진 사무국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불교에서도 호스피스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관련 과정을 통일화·체계화 시켜야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조계종 포교원 산하 기관에 속한

협회를 중심으로 불교호스피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몇몇 봉사자만을 대상으로 일부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분당 서울대 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 현수 스님도 "보건복지부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조계종단에서도 하루빨리 정부 정책에 발맞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자연 속에 위치한 사찰의 환경적 이점 역시 가정형 완화의료 사업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향후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국회차원에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재병원은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동국대 병원도 호스피스 병동 신설에 대한 관련 검토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무구 스님은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과 협의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추진 위원회를 발족, 동국대학교의료원을 통해 법인 측에 건의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홍천장애인복지관, 복지부 평가 최우수 기관

152개소 대상... 시설·재정·프로그램 등 6개 영역 올 'A'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이)이 전국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월 5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3년마다 실시하며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48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평가받은 장애인 복지관은 총 152개.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시설·재정·인적자원·프로그램·이용자권리·지역사회 등 6개 분야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A등급을 기록했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전인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각종 상담과 심리·교육·의료·재활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재활시설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관측은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을 계기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복지세상 구현에 더욱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개관한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2011년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배현진 기자

건강·복 부르는 정월대보름 행사

황송복지관, 3월 5일 복지관 이용자에 가운·부럼나눔

황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은 3월 5일 정월대보름 맞이 '모두 함께 호호(呼好)' 행사를 진행했다.

가운나눔, 새해소망을 담은 달집태우기, 전통차 시음행사, 부럼판대 등을 통해 복지관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모두 모여 전통놀이를 즐기며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 한글서예클럽체반 어르신, 티아트 봉사단(노인전문자원봉사단) 등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나서서 재능기부를 펼치기도 했다.

어르신들은 복지관 방문자들에게 가족과 이웃, 지역주민 모두 풍요롭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가운을 써서 나눠주며 정월대보름에 마시던 귀밝이술을 차로 대체해 나눠주기도 했다. 귀 밝이술은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싶다는 소망과 기원을 담은 정월대보름 아침에 마시던 술이다.

한편 이날 복지관 1층 로비에서는 땅콩·호두·은행 등 부럼판을 막는다는 부럼을 판매했으며 행사 수익금 전액은 노인복지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황송노인복지관에서 정월대보름맞이 귀 밝이 차 시음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용호복지관-에이취에스, 사회공헌 협약

2월 27일 저소득 청소년·홀몸 어르신 지원활동 약속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2월 27일 (주)에이취에스와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을 맺고,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매월 저소득 결식 어르신을 위한 생신잔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주)에이취에스는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32명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특별 장학금을 전달했다.

앞으로 (주)에이취에스는 홀로 외롭게 생신을 보내는 저소득 결식 어르신을 위해 매월 생신잔치를 개최,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생신잔치는 3월부터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에 실시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에이취에스에 감사드린다"며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멘토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자랑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2월 27일 (주)에이취에스와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을 맺었다.

러운 효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에이취에스의 신홍섭 대표이사는 "지역 내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꾸준히 지원활동을 수행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훈법인인 (주)에이취에스는 2010년부터 부산지역 내 다양한 복지시설에서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청소년·미혼모 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저소득 노인·장애인을 위한 도시락 나눔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 부산산파로나눔공동체와 함께 주 2회 무료급식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왔다.

배현진 기자



개운하게 봄맞이 대청소 기아자동차 가족봉사단이 2월의 끝자락, 서울시 종로구 내 경로당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기아차 직원 가족으로 구성된 봉사단 50명은 2월 28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과 함께 5개조로 나눠 경로당내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고무장갑을 끼고 유리창, 에어컨, 선풍기, 싱크대를 닦았다. 이날 봉사단은 종로노인복지관측에 후원금 150만원과 함께 쌀 20포대와 경로당 텃밭 가꾸기 활동을 위한 퇴비를 전달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재)대한불교일봉선교종 附設

일봉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1기 범음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봉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이타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외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복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2년 졸업)

- 개 강 : 2015년 양력 3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봉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제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3매
- 접수기간 : 2015년 3월 24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

※ 특 해 : 1기생 교육비 무료

實相寺禪詩碑

祈國清象雲集

燃香燭釋禮三更

願蒙諸佛神力

一鵬徐保壽書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9038-0908 학과장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신영동 93-1) 일봉선원 교무처